'제주형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도, 5월 정부지원 별도 4, 6월 두차례 지급
17만 가구 대상… 20일부터 읍면동서 접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지급과 별도로 총 2회에 걸쳐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로드맵을 보면 제주도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5월로 예상되는 정부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총 3회·1400억원에 이른다.

4월 중으로 진행되는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550억여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전체 29만여 가구 가운데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제주도는 5월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총 1500억원) 이후 6월 '3차 지급(550억여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가구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면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20일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자격 및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진다.

원희룡 도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000	46,890	11,340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출처 :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도, 2019 세입세출·재무회계 결산 결과

못쓴 돈 6500억… 총부채 1조 넘어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5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697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또 재무회계 결산 결과 부채는 1조원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및 24개의 기금 등 총 44개 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 세입은 6조2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1억원(3.7%), 예산대비 366억원(0.6%)이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전년대비 13.5%) 증가, 지방소비세 안분율 상승(11%→15%)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794억원(전년대비 55.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총 세출은 5조6304억원으로 전년 세출결산 5조2366억원 보다 7.5% 증가했다. 도는 결산 규모의 증가와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집행률은 90.05%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2017년은 83.3%, 2018년은 86.9%였다.

이월액도 전년대비 1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3391억원)과 보조금 반납금(3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재무회계 결산으로 살펴 본 제주도의 자산은 24조304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36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조470억원으로 135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총부채 배율은 2017년 4.16%, 2018년 3.93%, 2019년 4.31%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주택가서 주민위협 방견
남원읍 8~9일 일제 포획

서귀포시 남원읍이 최근 개 물림사고 및 주택가 침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방견 문제가 주민불안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8~9일 남원읍 일대에서 방견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방견을 포획하고 견주 확인 등을 거쳐 현장계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함께 남원읍은 방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남원읍은 이번 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모두 명심해주 개' 홍보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관광1번지 제주의 고통… "유채꽃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지만 유채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서귀포시와 가시리마을회가 8일 표선면 가시리 조랑말타운 인근에 조성된 유채꽃밭을 갈아 엎고 있다. 이상국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2곳 적발

제주시 "1~3월 관내사업장 점검… 단속 계속할 것"

제주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곳이 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3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결과 위반업체 22곳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1개소 중 52개소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보일러시설 40개소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또 봄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26개소 가운데 6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과 기타 환경오염 민원이 접수된 23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세탁업소와 세차장 업체 등에서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이 적발됐다. 또한 부적정 운영 3건을 비롯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기타 13건(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기준 부적합 등)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대해 경고 10건, 개선명령 8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3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취약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행위를 막아라"

도·공항경찰대, 제주공항 일원서 '모의 훈련'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붙잡기 위한 관계기관의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제공항경찰대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며,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0시 기준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확진자 접촉 140명·해외입국 409명)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흉기 휘두른 외국인 체포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태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태국인 A(29)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장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또 다른 태국인 B(42)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기자